

“識은 業속에 포함된 종자”

안성두 박사, 초기 유식학파의 연기론 설명

산스크리트본 ‘유가사지론’ 근거로 제시

부처님이 왕사성 근처의 우루벨라 마을을 내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것은 바로 연기법이었다. 그러나 불교사상사 속에서 연기는 다양하게 해석됐다. 업이 어떻게 시간적 과정 속에서 후대(果)의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교철학의 고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파가 나름의 연기설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열린 불교학연구회 학술 발표회에서 안성두 박사(종북대 강사·사진)는 12지 연기설의 입장에서 특히 제3지인 식(識)의 해석을 중심으로 <유가사지론>에 나타난 초기 유식학파의 연기설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연기의 해석에서 식의 개념 정의는 업의 과보의

문제 즉 업이 어떻게 미래에 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날 ‘유가사지론의 연기설’을 발표한 안 박사는 “식을 단순히 ‘업의 형성력의 결과’로만 보는 부파불교시대 유부의 연기 해석과는 달리 유식학파는 어떤 방식이든 업의 훈습력과 관련된 업 속에 포함된 종자로 식을 해석한다”며 “식을 업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식의 원인적 측면을 강하게 제시한 유식학파의 이러한 연기설은 이미 초기 논서인 <유가사지론>에서 처음 언급됐으며 <아비달마집론>, 세친의 <연기경석>, <성업론> 등의 후대 논서에 계승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유가사지론>에



나타난 연기설이 유부의 3세양중(三世兩重)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식학파의 2세1중(二世一重)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견해와, 유식학파의 연기설이 가장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아비달마집론>과 유사한 설명을 <유가사지론>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nia.com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해 왔다.

안 박사는 종자설을 근거로 한 2세1중적 인과구조로 12지 연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유가사지론>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산스크리트본 번역을 통해 밝혔다.

안 박사에 따르면, 12지 연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평면적 흐름 속에서 2중의 인과관계(3세양중)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는 유부의 입장에서 식은 과거세의 결과로서의 현재세에 속하는 상속식이다.

반면 현재와 미래사이의 인과관계(2세일중)로 연기를 파악하는 <유가사지론>은 잠재적인 힘으로서의 종자설에 근거해 12지를 해석한다. 이때 식은 6식신(六識身)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식을 상속식의 원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안 박사는 “<유가사지론>이 식을 6식신으로 정의한 이유는 아마 원인으로서의 식에 대한 강조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 해석은 이후 세친의 식에 대한 해석에서 보듯 유식학파의 논서에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말했다.

“삼국유사 正本 역주에 의의”

역주본 발간 참여 김상현 동국대 교수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 나라 고대사 연구의 필수 자료인 <삼국유사> 역주본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왔다. 전체 5권 가운데 <삼국유사> 제1권 왕력편과 제2권 기이편의 앞부분에 대한 주석서가 두 권으로 먼저 나왔다. 흥법편과 탐상편을 번역하고 주석을 단 3권과 의해편 등 나머지를 묶은 4권, 연구논문과 색인을 담은 5권은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역주 작업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김상현 교수(동국대·사진)는 “국문학(통재강 단국대 명예교수), 고고학(강인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 불교사(김상현 교수), 고대사(김두진 국민대 교수), 미술사(장종승 동국대 박물관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하며 지구 하나 하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시도했다”며 “각주에 국내 학계의 최근 연구 성과까지 반영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가 썩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5권 완성이 전하는 판본이 조선 중종 7년(1512) 간행된 목판본인 정덕본이라 이를 저본으로 택했지만 다른 판본도 꼼꼼하게 비교했다”며 “정덕본과의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일부본씩 따로 따

로 전하는 14세기 고간본(古刊本)들을 한 질로 묶어 영인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국유사> 역주본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지 않나?

“역주본은 거의 없었다. 육당 최남선본(本), 두계 이병로본, 이재호본, 북한의 리상호본 등 국내 외에 20여 종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 번역에 중점을 두었거나 주석을 병행한 경우도 그 내용이 간략하다. 일본의 미시나 아키히데(三品彰好)가 1975년 간행한 역주본이 있으나 국내 학계의 연구 성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장감이 떨어진다. 이번 역주본은 <삼국유사> 연구의 기본 텍스트가 되는 정본(正本)을 간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삼국유사> 현존 판본들이 대거 국보나 보물로 지정 예고했는데...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술적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보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14세기 간행된 고간본들은 참고에 적합해 있는 경우가 많아 학술적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 마이크로필름화해 연구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완전한 한 질이 아니라 따로 따로 소장하고 있는 고간본들을 한데 묶어 영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김 교수는 특히 “<삼국유사>는 고대 문화의 총합으로 역사뿐 아니라 종교, 신화, 민속, 미술 등을 원형에 가깝게 전해주는 필수 자료”라며 “지금까지는 내용 연구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서지학적, 사학사적 연구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구 하나하나에 정확한 해석 노력 14세기 고간본 모아 영인작업 필요

바미안석불 3차원 디지털 복원

박진호 씨, 파괴된 서쪽벽 55m 석불 사진공개

2001년 3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완전 파괴했던 바미안 석불이 한 국내 학자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3차원 디지털로 복원됐다.

탈레반 정권이 이슬람 근본주의 교리

에 어긋난다며 파괴한 바미안 석불은 바미안 계곡 서쪽 절벽에 있던 높이 55m 짜리 서대불(3~4세기 조성)과 36m 높이의 동대불(5세기 조성), 디지털 복원 전문가인 박진호(31·숙명여대 강사)씨

“원형복원때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

는 이 중 55m 높이의 서대불을 최근 3차원 디지털로 복원해 사진을 공개했다.

3~4세기경 조성된 바미안 서쪽 대불은 8세기 이 지역을 침입한 이슬람교도에 의해 얼굴의 일부가 부서졌고, 13세기에는 징기스칸 군대에 의해 왼쪽 팔

다리가 일부 잘려나간 상태. 박 씨는 파괴 전 작성된 석불의 실측도면과 남아 있는 사진 자료, 3~4세기 조성 당시의 바미안 석불과 같은 양식인 후기 간다라 석불 등을 비교·검토했던 끝에 파괴 직전 모습이 아니라 3~4세기 처음 조성됐을 때의 모습으로 복원해 냈다. 석불 얼굴부분 위쪽의 벽화는 파괴되기 전 일본 교토대학에서 찍어 놓은 사진을 근거로 복원했다.

“8세기 때 이슬람교도에 의해 일부가

부서진 얼굴의 원형 복원이 가장 힘들었다”는 박 씨는 “유네스코와 아프가니스탄이 추진하는 바미안 석불 복원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올해 안에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디지털로 복원된 바미안 서쪽 대불(3~4세기, 높이 55m)과 얼굴 위쪽 벽화(사진 오른쪽).



탈레반 정권이 이슬람 근본주의 교리

정보화 사회 가족가치관은?

현대불교사회문화원 포럼

불교에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의무·복종 아닌 ‘보은’으로 인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는 가족 관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남편에게 있던 가사결정권은 부인에게로 혹은 공동 결정권으로 바뀌고 있고,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사회에 필요한 가족 가치관은 무엇이며, 불교는 거기에 얼마만큼 유효한 답을 줄 수 있을까?

현대불교사회문화원은 26일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의 대응’을 주제로 5차 포럼을 연다. 이날 ‘정보사회에서의 가족관계 변화와 불교적 가족가치관’을 발표할 박승호(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씨

는 미리 제출한 발표문에서 “직접하지 않고 끊임없는 개방과 창조를 향해 열린 불교적 가치관을 분권화하고 수평적이며 탈중심화한 정보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 높은 적합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부모에 대해 자녀가 지켜야 할 덕목과, 자녀들의 교육과 지도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규정할 ‘상감라’에 대한 교훈’이나 <선생자경>, <잡

아함경> <육방어경>의 구절을 예로 들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불교의 윤리는 가장인 아버지 대한 의무나 복종을 강조하는 유교와 달리 보은의 정신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유교에서는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보아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불교에서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상호 호혜적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씨는 “불교적 가족가치관은 ‘효’로 대표되는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대체하여 ‘보은’을 축으로 하는 정보사회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가족가치관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감국사 茶禪사상 재조명

29일 송광사 학술회의, 민영규 교수 등 참여



◇원감국사 진영(송광사 소장).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현봉)는 29일 오전 9시 ‘원감국사 충지(沖止)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는다.

송광사 16곡가 가운데 제6조인 원감국사 충지(1226~1292)는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려·조선 대의 교류 특별전에서 최초로 공개된

‘원대 티베트법지(法旨)’로 더 잘 알려진 인물. 종래 충달왕의 명을 받고 원나라에 갔던 원감국사가 쿠빌라이 칸에게서 받은 ‘신본보장통행증’으로 알려졌던 이 티베트어 문서는 지난 해 국제학술회에서 원나라 불교계의 최고 권위자인 제사(帝師)가 송광사의 재산권 보호를 허락하는 명령문서(법지)임을 밝혀지기도 했다. 시문에도 능해 <동문선>에 작품이 전하기도 한다. 지난 해 다승사 보조선사의 조명이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민영규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진 동국대 명예교수, 진성규 중앙대 교수, 최인선 순천대 교수, 박원식 전주대 교수가 참여해 원감국사의 다산(茶禪) 사상을 조명할 예정이다. (061)755-0108

오키나와 해양심층탈염염료
‘신카이’ 한국상륙

한국·일본 매스컴들이 주목하는 바로 그 해양심층탈염염료가 ‘신카이’ 브랜드로 한국시장에 첫선을 보입니다

미네랄염료 ‘신카이’는 해양심층탈염염료 중 가장 뛰어난 건강염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카이(해양심층탈염염료)”는 태양이 미치지 않는 수심 800m 깊이 북극에서 곧바로 내려오는 오키나와 바다에서 사막 속의 오아시스라고 할 리우는 산호초의 퇴적지층을 통과하고, 천연 오염도 피하지 않고 깨끗하며, 살아있는 수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현재 생산되고 있는 해양심층탈염염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건강 염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건강염료 피부미용에...
1일 200cc의 함으로 2~3잔을 꾸준히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1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피부미용 및 약 복용시에도 좋습니다

건강요리에...
밥을 지을 때 쌀의 15%정도 신카이를 사용하고, 된장국에도 신카이요염 염료 1잔씩 사용하십시오. 조식시 물에서 찬재료도 적절히 사용하면 좋습니다

각종 식음료 혼합물료...
냉차, 커피 등에 사용하십시오. 특히 위스키 등 혼합물료 사용시엔 숙취해소에 좋습니다. 알코올이 들어 유스 등에 이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SBS-TV <대국민 약속> **좋은 생명이다** * 방영
- ‘유명한 청장신, 해양심층수 2001 10 12’
- ‘심층수의 기적 일본 열도 가다’ 1번
- ‘변화하는 일본인의 식탁 2001 11 9’
- ‘심층수의 기적 일본 열도 가다’ 2번
- ‘고지(고지)의 신화 2001 11 16’
KBS-TV * **일모습** * 방영
- ‘신비의 물 해양심층수’ 편 2002 4 28

제품구입 및 대리점 상담문의 02-795-1673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유증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함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상: 만 65세 이상, 노환수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분
- ◆정원: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본 건물 → 방구모(약 5명) 24실 (각실 인트폰 설치) → 오락실, 체력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 ◆입방비부담: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 ◆연락처: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기도처 자광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남다른 부처님을 모시고 영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신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인륜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타 실버타운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